

제7차 중학교 사회 1 교과서 〈북부지방의 생활〉 내용 분석

손명철* · 라영숙**

목	차
I. 머리말	III. <북부 지방의 생활> 단원 의 바람직한 내용 구성을 위한 제언
II. <IV. 북부 지방의 생활> 단원의 교과서별 내용 비 교·분석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I. 머리말

1. 연구 배경과 목적

교수·학습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자료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교과서는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육자료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며 대부분의 학생과 교사들이 가장 중요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에 담긴 내용과 관점 등은 교사와 학생의 수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특히 북부 지방에 대한 학습의 경우 자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교과서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남북한이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로간에 화해·협력과 평화 공존을 추구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북부 지방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이 요구되는 시기라 하겠다. 특히 북부 지방은 직접적인 현지 답사나, 경험을

*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지리교육전공) 교수

** 제주 중앙여자중학교 교사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므로, 교과서를 통한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 나라 중학교 사회 1 교과서의 교과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그 동안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져 왔으나, <북부 지방의 생활> 단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사회 1 교과서의 <IV. 북부 지방의 생활> 단원에 대하여, 첫째, 교과서 서술 관점이 남북한의 통일 환경과 통일 인식 변화에 부응할 수 있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점을 6차와 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비교·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둘째, 7차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발행된 6종의 검인정 교과서의 서술 관점, 단원 구성, 학습 목표, 학습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6종 교과서간의 차이점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셋째, <북부 지방의 생활> 단원의 바람직한 내용 구성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함으로써, 일선 교사들의 교과서 선정과 교수 학습에 도움을 주고, 앞으로의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개편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보조적으로 북한 지역에 대한 답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기본 자료는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국정교과서와,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6종의 중학교 「사회 1」검인정 교과서이다. 6종의 검인정 교과서는 연구의 편의상 각 교과서를 알파벳 기호로 표시하여 비교·분석하였다¹⁾. 각각의 교과서에 따른 교사용 지도서와 제6차, 제7차 교육과정 해설서도 참고하였으며, 다수의 선행 연구 논문을 참조하여 분석의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북한 지역에 대한 답사는 2002. 5. 10~15일까지 실시된 제주도민 북한 방문단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평양을 중심으로 묘향산, 백두산 등지를 답사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IV. 북부 지방의 생활> 단원으로 한정하였으며,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6종 교과서에 대해 서술 관점과 단원 전개 체제, 단원의 비중, 단원의 내용 구성 체계와 학습 목표, 학습 자료를 비교·분석하였다. 서술 관점과 학습 자료는 6차 교과서와의 비교를 통해 변화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부 지방의 생활> 단원의 바람직한 내용 구성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 1) A : 최현섭 외 14인(2000), 「중학교 사회 1 교과서」, (주)고려출판.
 B : 조화룡 외 12인(2000), 「중학교 사회 1 교과서」, (주)금성출판사.
 C : 김희목 외 7인(2000), 「중학교 사회 1 교과서」, 동화사.
 D : 오경섭 외 11인(2000), 「중학교 사회 1 교과서」, (주)도서출판 디딤돌.
 E : 김주환 외 9인(2000), 「중학교 사회 1 교과서」,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F : 이진석 외 11인(2000), 「중학교 사회 1 교과서」, (주)지학사.

Ⅱ. <Ⅳ. 북부 지방의 생활> 단원의 교과서별 내용 비교 · 분석

1. 서술 관점

북부 지방은 앞으로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우리 국토의 한 부분이며,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함께 해야 할 우리 민족이다. 북한은 통일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통일 파트너 이면서, 동시에 경계해야 할 대상²⁾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을 우리와 함께 할 동반자로 끌어안기 위해서는 북한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부 지방에 대한 기술이 어떠한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표 1>과 같은 준거 틀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1> 서술 관점 비교 척도

관점의 비교 척도	내용 분석의 기준
냉전적	북한에 대한 서술이 부정적이며, 주관적으로 기술된 경우
중립적	북한에 대한 서술이 객관적이며, 사실적인 내용을 기술한 경우
화해 지향적	북한에 대한 서술이 객관적이면서도 긍정적인 경우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6종 교과서의 서술 관점을 분석해보면, 북한의 상황을 북한의 입장에서 서술하거나 객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부분도 있으나, 아직도 북한에 대한 서술이 냉전적이거나 주관적이며, 남북의 이질성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분단의 원인, 평양에 대한 서술, 집단 농장 체제, 북한의 농업 생산력, 북한의 식량난, 북한의 전력 사정과 원자력 발전소, 북한의 공업, 북한의 지명 변천, 북한의 경제 체제,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의 원인에 대한 내용의 경우, 6종 교과서 대부분이 냉전적인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평양과 북한의 집단 농장에 대해서는 모든 교과서가 냉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반면 서해 갑문에 대한 서술의 경우, A 교과서를 제외한 5개 교과서가 서해 갑문 건설의 사실적인 효과만을 기술하여, 중립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대륙의 관문에서는, 3개 교과서는 냉전적이거나, 3개 교과서는 중립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공업에 대해서 3개의 교과서는 경공업은 미약하고 군수공업 위주의 중화학 공업이 대체로 발달하고 있다는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3개의 교과서는 경공업 발달에 노력하고 있음을 서술하여 교과서간에 시각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전력 부분

2) 통일교육원(2000), 「새 천년, 통일 문제 새로 보기」, p. 8.

에서 2개 교과서는 영변 원자력 발전소가 군사적 목적을 가진 시설이라고 서술하고 있으나, 나머지 4개 교과서는 그런 내용을 기술하지 않고 북한의 전력의 왜 부족하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개방 정책의 추진 배경과 결과에 대해서는 2개 교과서는 중립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4개의 교과서는 냉전적인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다. 개방 정책의 결과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교류에 대해서는 6종 교과서 모두가 중립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7차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6종 교과서의 서술 내용을 6차 교과서와 비교해 보면, 북한의 집단 농장과 평양, 북한의 행정 구역 변화에 대한 기술의 경우, 7차와 6차 교과서의 서술 관점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북한의 전력 상황, 북한의 공업에 대한 내용의 경우 서술 관점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의 공업에 대한 서술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공업 중에서 군수 공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경공업의 비중이 뒤떨어져 생활필수품과 식료품 등이 매우 부족하고, 경제 성장률이 낮다. 경제 성장의 실패 원인으로는 산업 시설의 노후, 기술 부족, 외화 부족으로 인한 무역 위축, 지나친 군사비 부담, 기술 증진보다 공산주의 사상 우선에 따른 근로 의욕 상실 등을 들 수 있다.(6차 교과서 106쪽)

관서 지방에는 풍부한 동력 자원과 지하 자원, 편리한 교통 조건 등으로 공업이 발달하였으나, 군수 공업 위주의 정책으로 경공업은 매우 미약하다.

남포, 사리원을 포함한 북한 최대의 평양 공업 지구에는 제철, 화학, 섬유, 식료품 등의 공업이 발달하였다.(6차 교과서 111쪽)

편리한 교통과 풍부한 자원으로 공업이 발달한 관서 지방은 군수 공업 위주의 중화학 공업이 발전하였으나 최근에는 경공업과 컴퓨터 산업에도 힘쓰고 있다.(7차 A 교과서 97쪽)

분단 이후 중공업 위주의 군수 산업에만 치중한 데다 기술 도입이 늦어져 공업 부문간에 고른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북한은 최근 남포와 해주 등지에 남한 기업과 합작으로 섬유·전자 공장 등을 건설하여 경공업의 발전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7차 C 교과서 119쪽)

이와 같이 교과서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같은 주제에 대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서술 내용이 매우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구성 체계

1) 단원 전개 체계

6종 교과서는 대체로 몇 개의 공통적인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교과서 나름대로의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은 6종 교과서에 나타난 단원 전개

체제의 공통적인 틀로, 이 틀을 기준으로 하여 교과서간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대단원명 → 단원개요 → 중단원명 → 학습 목표 → 소단원명 → 본문 → 탐구활동
→ 심화활동 → 단원정리

<그림 1> 단원 전개 체제 공통요소

대단원명은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에 따라 6종 교과서 모두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다. 대단원별로 구성되어 있는 단원 개요는 단원을 도입하는 부분으로, 대체로 단원 설정의 필요성과 단원에서 중점을 두고 학습해야 할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단원의 전체적인 학습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6종 교과서 모두 단원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사진을 맨 앞부분에 게재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C 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서 대단원 도입 글을 제시하여 단원의 주요 내용 파악을 용이하게 해주고 있다. D 교과서는 북부지방에 대한 지도에 학습 목표를 연계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함은 물론, 공간 개념과 지리적인 태도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E 교과서는 단원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를 제시하여 단원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고 연습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F 교과서의 경우에는 단원의 도입부에서 우리 나라 전도를 통해 북부 지방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가운데에 배치한 큰 지도에서는 북부 지방의 주요 지역을 지도에 표시하고 관련된 사진을 제시하여, 지리적인 안목을 키움은 물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7차 사회 교과서는 기본적인 틀은 같으나 나름대로 다양한 단원 전개 체제를 이용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장의 교사들은 한가지 교과서에 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여러 교과서의 단원 전개 체제 중에서 학습 효과를 높이는데 필요한 부분을 다양하게 발췌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 단원의 비중

교과서 전체 면수에 대한 북부 지방의 비중은, C 교과서가 7.3%(24면)로 가장 높으며, E와 F 교과서가 6.7%(22면)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교과서의 절대 면수는 D 교과서가 20면으로 가장 적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 각 지방에서 북부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부와 남부 지방과 비교해보면 중부 지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평균 38.3%를 차지하고 있고, 남부 지방이 평균 35.2%, 북부 지방은 가장 적은 26.0%로 나타나, 비중이 가장 큰 중부 지방에 비해 12.3%나 적은 편이다. 특히 E 교과서는 중부 지방에 비해 북부 지방의 분량이 16쪽이나 적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 각 지방에서 북부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을 교과서별로 비교해보면 B 교과서

가 28.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E 교과서가 23.4%로 5.2%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단원별 비중을 살펴보면, <관서 지방>이 평균 3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관북 지방>으로 평균 27.6%, <대륙의 관문>은 26.2%로 가장 적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관서 지방이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끼고 있으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여겨진다. 그러나, 관북지방 또한 현재 금강산 관광의 중심지이며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인접하고 있고,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에서 개방의 정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북부 지방 내에서의 비중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3) 단원의 내용 구성 체계

7차 교육과정의 경우 교과서가 검인정으로 바뀌면서 6차에 비해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출간되었다. 그러나 대단원과 중단원 제목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대로 통일성 있게 이루어져 있어서, 학생의 수준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돼 있는 소단원을 중심으로 분류해 보았다.

소단원의 숫자는 D 교과서가 11개로 가장 많이 세분화 되어있으며, E, F 교과서는 9개, A, B 교과서는 8개이며, C 교과서는 7개로 소단원의 수가 제일 적게 나타나고 있어 교과서간 소단원 구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D 교과서는 소단원 밑에 직접 본문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나머지 5종 교과서는 단원의 내용을 좀 더 세분한 소주제를 제시하여 학습 내용의 명료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중단원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륙의 관문>은 북부 지방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들을 정리해 놓은 부분으로 북부 지방의 위치적인 특성을 강조하여 표현함으로써 국토 통일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5개 교과서는 북부 지방의 위치적인 특성, 지형적인 특성, 기후 특성의 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C 교과서만 유일하게 지형과 기후의 특색을 하나의 단원으로 묶어 구성하여 2개의 소단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2. 북부 지방의 중심지 관서 지방>은 D 교과서만 수도인 평양을 2개의 소단원으로 세분하여 제시하여, 4개의 소단원으로 구성하고 있고, 나머지 5개 교과서는 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A, C, E, F 교과서는 공업보다 농업을 먼저 취급하고 있으나, B, D 교과서는 공업을 먼저 기술하고 다음으로 농업을 기술하여 교과서간 소단원 기술 순서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서 지방의 공업에 대해 A 교과서는 소주제에서 '경공업과 첨단산업 발전에 힘쓰는 관서 지방'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E 교과서는 '군수공업 중심의 중공업'이라고 표현하여, 소주제에서도 교과서간 서술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3. 문호를 개방하는 관북지방>의 경우, 소단원이 가장 많이 구성된 교과서는 D 교과서로 4개이고, 다음으로 E, F 교과서가 3개, A, B, C 교과서는 가장 적은 2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B, F 교과서는 소단원의 제목을 요점 중심으로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으나, 나머지 4개 교과서는 서술형으로 풀어 제시하고 있으며, D 교과서는 “백두산 뺨어내려 반도 삼천리”와 같은 은유형의 표현과 “북한은 왜 개방을 해야만 하는가? 등의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있다.

대체로 6종 교과서 모두 소단원의 제목이 친근함을 느끼게 하는 문장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서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주제의 요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다. 소단원 밑에 소주제를 두는 것이 학습 내용을 명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소주제의 수는 소단원 당 2개 정도가 알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 교사들은 교과서의 체제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중단원에 알맞게 소단원과 소주제를 적절히 배치하여 수업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3. 학습 목표

1) 학습 목표의 구성

학습 목표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6종 교과서 가운데 D 교과서만 대단원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중단원별로 학습 목표를 제시한 교과서는 A, B, E, F 교과서이며, 소단원별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교과서는 B, C, D, F 교과서이다. 대단원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교육과정에서는 5개를, D 교과서는 3개를 제시하고 있다.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³⁾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D 교과서는 구체적으로 대단원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 학습 목표의 영역별 비교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지식과 이해>, <지리적 능력과 기술>, 그리고 <지리적 가치와 태도>로 학습 목표의 영역을 구분했으며, 특히 지리적 능력과 기술의 경우에는 자료 이용의 능력에 주안점을 주고 분류하였다. 각 교과서의 학습 목표를 영역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표 2).

<표 2> 각 교과서의 영역별 학습 목표의 특징 비교

(단위 : 개)

구 분	교육과정	A	B	C	D	E	F
지식 이해	7	7	8	8	7	7	8
능력 기술	1	1	0	0	1	1	0
태도 가치	1	1	1	1	0	1	1

3) 교육부(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pp. 266~267.

위 표에서 보면 6종 교과서 모두에서 지식 목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능 목표는 A, D, E 교과서에서는 1개씩 제시되고 있으나, 나머지 3개 교과서에서는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지리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리적 능력과 기술의 획득”⁴⁾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하며 학생들의 지리적인 기능을 향상시키고 지리적인 관점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기능적 목표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가치 목표는 D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서 각각 1개씩 나타나고 있다. 북부 지방에 대한 학습의 경우, 북부 지방의 자연과 인문 환경을 공부하는 것과 더불어,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가치 목표의 제시가 더 늘어나야 하겠다.

영역별 학습 목표의 총수를 비교해보면, 지식 목표가 총 62개 중 52개로 8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태도·가치 목표가 9.7%, 능력·기술 목표가 6.5%로 가장 적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북부 지방의 생활 단원의 학습 목표가 지식목표에 너무 치중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으로, <북부 지방의 생활> 단원이 지리 단원인 만큼 지리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지리적인 안목과 자료 이용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능 목표의 개발과 제시가 요구된다. 특히 지리 과목이 암기 위주의 교과라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지식 위주의 목표 제시에서 탈피해야 하겠다.

4. 학습 자료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료를 사진, 지도, 도표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사진에는 모식적인 그림을 포함했으며,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그려진 만화의 경우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로 취급하여 분류하였다. 도표에는 표와 그래프를, 지도에는 모든 지도와 모식적인 지도를 포함시켜서 분석하였다. 하나의 주제 아래 여러 개의 학습 자료가 있는 경우 각각의 개수를 세어 분석하였다.

교과서별 학습 자료의 총 수는 C 교과서가 80개로 가장 많으며 사진, 지도, 도표 자료의 비중이 다른 교과서보다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E 교과서 49개, B 교과서 47개, A 교과서 42개, F 교과서가 35개이며, D 교과서는 34개로 가장 많은 C 교과서보다 46개나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리 교육에 있어 학습 내용에 적합한 지도, 도표, 사진 등의 시각적 교재의 선택과 활용은 언어보다도 지리적 개념, 관계, 통칙 등을 쉽게 이해시키고 획득 시켜준다⁵⁾. 실제 현장에서 수업을 해보면 교과서에 다양한 학습 자료가 실려 있는 경우 수업에 대한 흥미와 효율성이 높아지며 학생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기가 편하다. 그러므로 C 교과서를 제외한 5종 교과서 모두 학습 자료

4) 김연옥·이혜은(1999), 사회과 지리교육연구, 교육과학사, p. 70.

5) 임덕순(1986), 「지리교육원리」, 법문사, p. 27.

를 더욱 많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학습 자료별로는 사진 자료가 총 169개(평균 28.2)로 전체의 58.9%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은 일정 시점에서 가장 사실적이고 함축적인 지리정보자료를 담을 수 있는 유용한 표현매체⁶⁾이며, 북부 지방이 직접적인 현지 답사가 어려운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도표 자료는 두 번째로 많은 63개(평균 10.5)로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도 자료는 가장 적은 55개(평균 9.2)로 19.2%를 나타내고 있다.

Shepard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림에 의한 기억이 문자에 의한 기억보다 학습에 더욱 효과적⁷⁾임이 입증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사진 자료와 더불어 도표와 지도 자료의 제시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7차 교육과정 6종 교과서의 학습 자료를 6차 교과서와 비교해보면, 학습 자료의 총수는 7차가 평균 46.2개, 6차가 22개로 6차에 비해 24.2개나 증가하였다.

<표 3> 교과서별 학습 자료의 비중

(단위 : 개)

교과서 학습 자료	A	B	C	D	E	F	7차 교과서			6차 교과서	
							계	평균	%	개수	%
사 진	24	28	47	22	27	21	169	28.2	58.9	11	50
도 표	9	9	21	4	13	7	63	63	22.0	2	9.1
지 도	9	10	12	8	9	7	55	55	19.2	9	40.9
계	42	47	80	34	49	35	287	287	100.1	22	100

사진 자료는 평균 28.2개로 6차의 11개에 비해 17.2개가 늘어났으며, 학습 자료 내에서의 비중은 6차 교과서 보다 8.9%나 증가하였다. 도표 자료는 평균 10.5개로 6차 교과서의 2개에 비해 8.5개가 늘었으며, 학습 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차 교과서보다 12.9% 증가했다. 지도 자료는 평균 9.2개로 6차의 9개와 별반 차이가 없으며, 학습 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6차 보다 21.7%가 감소했다.

7차에 들어와서 사진과 도표 자료가 늘어난 것은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높이고, 수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지도 자료의 수가 감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단원은 지리 단원인 만큼 지리적인 사고의 육성과 더불어 지리적인 기능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런 만큼 지도의 비중과 지도를 이용한 탐구 학습이 좀 더 다양하게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 내용은 물론이고 각종 학생 활동에 지도 이용 기회를 좀더 많이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리교육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분포와 비교, 변천의 개념을 학생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도표의 활용

6) 한국지리정보연구회(2000), 「지리학 강의」, 한울아카데미, p. 307.

7) 한국교육개발원(1995), 「교과서 정책과 내용 구성 방식 국제 비교 연구」, p. 148.

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도표의 제시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제7차 교과서에서는 탐구활동과 심화활동에 각종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다. 탐구활동에 학습 자료를 가장 많이 사용한 교과서는 A 교과서로 12개이며, C 교과서는 3개로 9개나 적게 나타나 교과서간 격차가 큼을 알 수 있다. 지도 자료는 A, B 교과서에서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도표 자료는 6종 교과서의 활용도가 거의 비슷하고, 사진 자료는 A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심화활동에서는 C 교과서가 총 7개로 가장 많은 개수를 보이고 있으며, 6종 교과서에서 유일하게 지도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C 교과서를 제외한 5종 교과서들은 모두 3개의 학습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사회 교과서에는 보조 교재로서 사회과부도가 같이 사용되고 있으며, 지도와 도표 등의 경우 사회과부도에 나와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제 수업을 해보면,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된 지도나 도표가 사회과부도에 없는 경우가 많아, 두 학습 교재간의 연계성이 많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수업에 필요한 지도의 경우 교과서 내에 수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Ⅲ. <북부 지방의 생활> 단원의 바람직한 내용 구성을 위한 제언

1. 서술 관점

앞에서 6종 교과서의 서술 관점을 분석해 보면, 중립적이고 화해 지향적인 시각보다 주관적이고 부정적이며 냉전적인 시각으로 서술된 부분이 많았으며 북한에 대해 고정 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북한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서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특정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북한에 대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⁸⁾.

현재 우리 나라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남북 교류를 통한 남북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이루려면 서로를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기를 수 있는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행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의 서술 관점이 냉전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긍정적, 객관적이며, 상호

8) Greenfield, G. M.(1986), "Latin America", Social Education, Vol. 50, pp.351-356.(상대방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내용 기술이 특정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행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해적인 관점으로 변화해야 하며, 화해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더불어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행해져야 하며, 서로간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교육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2. 구성 체계

1) 단원 전개 체계

탐구 활동은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으로 6종 교과서 모두 소단원별로 제시하고 있어서 바람직하며, 지리 부분이라는 단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도를 이용하여 활동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학생들의 지리적인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이 이루어지고 난 직후에 자신이 배운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중단원별로 학생들 스스로 자신이 학습한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형성평가 문항을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은 한가지 교과서의 단원 전개 체계에만 의지 할 것이 아니라, 6종 교과서의 단원 전개 체계 중에서 바람직한 부분을 재구성하여 수업 시간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선 교사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각 학교의 사회 담당 교사들에게 6종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그에 따른 학습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일선 학교에는 검인정 교과서가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으나, 1권씩만 제공되고 있어서 여러 명의 선생님이 한 학년을 나눠서 가르치는 경우에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2) 단원의 비중

한국지리 부분에서 북부 지방에 대한 비중이 중부 지방에 비해 평균 12.3%나 적고, 남부 지방에 비해서는 9.2%나 적게 나타나고 있다. 북부 지방은 한반도 전체 면적 대비 55%, 남북한 전체 인구 중 약 33%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보다 많은 사실적 지식을 제공하고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부 지방에 대한 비중을 높여서 중부와 남부 지방과 대등하게 균형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대체로 7차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현행의 6종 교과서들은 주제에 대한 내용 설명이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학생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내용 설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하며, 수업에 필요한 각종 학습 자료가 다양하고 충분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의 전체적인 분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3) 단원의 내용 구성 체계

6종 교과서 모두 대단원과 중단원명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대로 통일성 있게 구성

되어 있다. 검인정 교과서의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중단원명부터는 교과서 집필자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자율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소단원 밑에 소주제를 두는 것이 학습 내용을 명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소주제의 수는 소단원 당 2개 정도가 알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 교사들은 교과서의 체제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중단원에 알맞게 소단원과 소주제를 적절히 재구성하여 수업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3. 학습 목표

학습 목표는 중·소단원별로 제시해 주는 것이, 학생들의 성취 지향점을 명료하게 인지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습 목표를 영역별로 분석해보면 지식 목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별로도 6종 교과서 모두 지식 목표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리 단원인 만큼 지식 위주의 학습 목표 제시에서 벗어나 지리적인 기능을 함양할 수 있는 목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 의지 함양과 관련된 단원인 만큼 정의적인 목표의 제시도 더 많아져야 하겠다. 즉 지적, 기능적, 정의적 학습 목표가 40 : 30 : 30 정도의 대등한 비율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리적 능력 및 기술과 관련된 학습 목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다. : ……을 지도에 나타낼 수 있다. ……을 도표로 그릴 수 있다. ……을 도표로 그려서 비교 할 수 있다. …… 도표를 보고 ~을 파악 할 수 있다.

4. 학습 자료

1) 사진

현재 우리 교과서의 사진은 외국의 교과서에 비해 크기가 작으며 선명도가 낮은 편이다⁹⁾. 특히 C 교과서 같은 경우 다른 교과서의 약 2배에 달하는 사진을 싣고 있으나, 한정된 페이지에 많은 사진 자료를 실으려고 하다보니, 사진의 크기가 더욱 작아지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북부 지방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현장 학습과 자료의 취득이 어려운 지역이므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새롭고 다양한 사진이 많이 실려야 하며 크기도 더 커져야 한다. 교과서의 지면 관계상 사진의 총수와 크기를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교과서의 판형을 더 크게 하거나, 따로 사진 자료만을 모아놓은 자료집을 만들어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배

9) 호주 교과서의 경우, 사진 크기가 교과서 한 면의 1/4에서 1/2 정도의 크기를 갖는데 비해 우리 교과서는 대부분 1/8 정도의 크기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진의 선명도에 있어서도 아직 부족하다.

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 6종 교과서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비슷한 내용의 사진도 있지만, 각각의 교과서마다 다양한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하나의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을 받기 때문에 자신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 나와있는 사진만을 접하게 된다. 학생들이 다양한 사진을 접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사들이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진을 스캔해서 자료화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진을 스캔할 경우 사진의 선명도가 많이 떨어지며 크기 조절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현재의 교사들의 여건상 이런 작업을 일일이 하기가 어렵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작업을 개별 교사들이 모두 한다는 것은 시간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각 교과서에 나와있는 지도와 사진, 도표 자료 등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해서 학교 현장에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작업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료를 경험하게 해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현재 7차 교과서에 실린 사진을 보면, 북한 주민들의 실제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가 매우 적은 편이다. 학생들에게 북한의 체제와 관련하여 북한을 파악하게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우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문이나 다른 책에 나온 사진에는 북한 주민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 북한 학생들이 친진난만하게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모습 등이 실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 교과서에서는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사진을 실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배려한다면 얼마든지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교과서 집필 시에는 이런 부분도 고려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최근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진 자료의 참신성을 높였으면 한다.

2) 도표

도표는 복잡한 내용이나 수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며, 학습에 대한 흥미와 주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현상내의 여러 요소간의 관련성을 쉽게 파악 할 수 있게 해주며, 상호 비교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지리 부분에 있어서 도표의 사용은 수업 효과를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과서에 실려있는 일부 도표의 경우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표의 표현 기법에 대한 연구가 행해져야 하겠으며, 가능한 한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고려해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도표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내용이 비슷한 색으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이해와 파악을 더디게 하는 경우가 있다. 비교하고자 하는 내용이 한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색 배합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3) 지도

지리 수업에 있어서 지도의 활용은 필수적이며, 지도를 통해 지구 표면의 여러 가지 지리적 사상을 알 수 있고, 추상적인 여러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도는 사회과 학습에서 뿐만 아니라 생활의 발달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도를 읽고 해석하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현대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며 기능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지도가 없이 지리 부분을 수업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우며¹⁰⁾, 지리 단원의 경우 지도 자료는 학습 내용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제시해야 한다.

교과 내용과 관련된 지도의 경우 사회과부도에 따로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수업에 있어서는 교과서에 나온 지도가 활용하기에 편리하며, 교과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도가 사회과부도에 나와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가능한한 교과서에 학습 내용과 관련된 지도 자료가 많이 수록되어야 하겠다. 더불어 교과서와 사회과부도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 개발과 사회과 부도 개발간의 연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¹¹⁾.

7차 교과서에 나와있는 지도의 내용상 문제점으로는 지도에 쓰여있는 글자가 작거나, 선명하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북부 지방의 지형에 대한 지도에서 대부분 교과서가 강의 명칭을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 바탕색과 어우러지면서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도를 멋있게 꾸미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역적인 특징을 확실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글씨 크기와 색깔을 잘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도의 크기가 좀 더 커져야 할 것이며, 글자의 선명도를 높이고, 바탕색과 글자색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할 것이다. 단원의 성격상 단원 마무리 부분에서 백지도를 이용하여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주는 것이 지리적인 관점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행 중학교 사회 1 교과서 <IV. 북부 지방의 생활>단원의 서술 관점과 단원 구성, 학습 목표, 학습 자료를 분석하여, 6종 교과서간의 차이점과 개선점을 살펴본 것으로, 6차와 7차 교과서의 서술 관점과 학습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북부 지방의 생활> 단원의 바람직한 내용 서술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술 관점을 살펴보면 6차에 비하여 긍정적이고 중립적인 서술이 늘어난 편이나,

10) 김연옥·이혜은, 전제서, p. 232.

11) 교과서 개발 팀에서 사회과부도를 개발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냉전적이고 주관적으로 서술된 부분이 많이 있다. 교과서별로는 내용에 따라 서술 관점이 같은 경우도 있으나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교과서간 서술 관점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둘째, 6종 교과서의 단원 전개 체제가 대단원명 - 단원개요 - 중단원명 - 학습목표 - 소단원명 - 본문 - 탐구활동 - 심화활동 - 단원정리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교과서 나름대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셋째, 학습 목표의 제시 단계가 교과서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역별 학습 목표는 지식 목표 83.9%, 가치 목표 9.7%, 능력 기술 목표 6.5%로, 지식 목표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학습 자료를 6차와 비교해보면 사진과 도표는 늘었으나, 지도는 오히려 비중이 감소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크기가 대체로 작고, 선명도가 떨어지며, 최근의 자료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교과서간 사진 분량의 차가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사진 자료가 매우 빈약하다.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발생한 이질감 해소의 난제가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독일 통일의 교훈을 귀감으로 삼아, 남북 간의 이질감을 줄이고 서로간의 동질감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서로를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하며, 긍정적이고 객관적이며, 화해 지향적인 관점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서술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사회 교과서에는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이 강조되어 실리고 있으나, 남북한이 진정으로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 통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북한사람들의 삶을 전체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북한의 어려운 식량 사정과 더불어 북한 주민들의 정적인 인간 관계나 공동체 의식에 관한 내용이 동시에 실려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양적인 분석과 더불어 비판적인 안목에서 서술 관점에 대한 질적인 내용 분석도 겸하였으나, 주로 양적인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차후에는 질적인 분석이 더욱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부 지방에 대한 이해 증진과 북한 주민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지리 분야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와 통일과 통일 후에 대비하기 위한 <북부 지방의 생활> 단원의 실제적인 내용 구성에 대한 연구가 행해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일선 교사들은 특정 교과서 선정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6종 교과서에 제시된 다양한 자료들 중에서, 필요한 자료를 적절히 활용·재구성해서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학업 성취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교육부(1997a), 「사회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부(1997b), 「중학교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부(1992a), 「중학교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부(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부(1992b),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김연옥·이혜은(1999), 「사회과 지리교육 연구」, 교육과학사.
김주환 외 9인(2000a), 「중학교 사회 1 교과서」,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김주환 외 9인(2000b), 「중학교 사회 1 교사용 지도서」,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김희목 외 7인(2000a), 「중학교 사회 1 교과서」, 동화사.
김희목 외 7인(2000b), 「중학교 사회 1 교사용 지도서」, 동화사.
남상준(1999), 「지리교육의 탐구」, 교육과학사.
오경섭 외 11인(2000a), 「중학교 사회 1 교과서」, (주)도서출판 디딤돌.
오경섭 외 11인(2000b), 「중학교 사회 1 교사용 지도서」, (주)도서출판 디딤돌.
이진석 외 11인(2000a), 「중학교 사회 1 교과서」, (주)지학사.
이진석 외 11인(2000b), 「중학교 사회 1 교사용 지도서」, (주)지학사.
조화룡 외 12인(2000a), 「중학교 사회 1 교과서」, (주)금성출판사.
조화룡 외 12인(2000b), 「중학교 사회 1 교사용 지도서」, (주)금성출판사.
최현섭 외 14인(2000a), 「중학교 사회 1 교과서」, (주)고려출판.
최현섭 외 14인(2000b), 「중학교 사회 1 교사용 지도서」, (주)고려출판.
한국교육개발원(1995), 「중학교 사회 1 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한국교육개발원(1995), 「중학교 사회 1 교사용 지도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1992), 「중학교 사회 1 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논문 및 기타 자료>

- 박경희(1974), “중학교 사회 I 교과서 내용 분석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상건(1991), “통일 독일과 한반도의 통일여건 비교·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승환(1998), “지리교과서의 그래픽 자료의 비교 연구-제 5·6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장원(2000), “남북 정상 회담 이후 학교 통일교육의 변화”,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34호, pp. 225~250.
이협주(1986), “현행 고등학교 지리 I·II 교과서의 내용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

사범대학교 교육대학원.

정상돈(2000), "대북 포용 정책과 통일교육 : 독일통일과정의 교훈에 대한 재검토", 「국가 전략」, 6권 4호, pp. 101~102.

차우규(2000), "학교 통일 교육의 새로운 방향", 「교육광장」, 10월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p. 82~87.

황재기(1967), "중학교 사회 I 교과서의 내용 분석", 「논문집」, 제4집,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pp. 34~62.

통일부(2001), 「2001년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통일부(2002), 「2002 통일교육기본지침서」.

통일교육원(2000), 「새 천년, 통일 문제 새로 보기」.

통일교육원(1998), 「통일교육 교수 기법」.

한국교육개발원(1995), 「교과서 정책과 내용 구성 방식 국제 비교 연구」.